

## 조오섭 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타 기준 달라야”

문 대통령·민주 초선의원 간담회  
호남 예타 피해 조목조목 설명  
비용 대비 편익 방식 개선 건의

백신 휴가·기후위기 대응 등 건의  
부동산 실패·조국 사태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가균형발전권을 위한 컨설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광주일보의 지적 <6월 3일자 1·3면>이 3일 공식 건의됐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 '효율'과 '경제성'만을 따지는 제도 운용으로 국가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고, 후보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조사 방식을 재논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조'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후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여명의 초선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발언에 나선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일보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제도가 생긴 이래 21년간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면서 예타 조사 과정에서의 지역 피해를 강조했다.

조의원은 현재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비용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만을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지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618건 280조3231억원이 예타 통과 또는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사업 예타 통과·면제 규모는 14.67%에 해당하는 36조 수준에 그친다"며 "반면 수도권은 35.04%인 86조, 영남권은 26.5%인 65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호남권 투자가 극히 저조했다'며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한 103개의 SOC 사업 중 27개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이 가운데 비수도권은 21개로 7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울주도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은 32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28개가 통과됐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여타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 분석 결과 1.3 이상이 나오면 민간 자본 유치를 권장하고 0.8 이상은 국가 재정지원을, 0.5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지표와 정책성 평가 지표를 가산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제정의 적극적 역할부터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책임제, 국가균형발 전, 남북 관계, 군 장병 처우 개선, 백신 휴가, 기후 위기 대응,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정책전의를 쏟아 냈다. 그러나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적된 부동산 정책실책이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 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관련한 질문이 없었는지’에 대해 “그걸 갖고 문 대  
통령에게 질문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했  
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쓰소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 전 장관과 부동산 등의 문제는 이미 지도부가 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매듭지어진 사안”이라며 “앞으로의 정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

광주 찾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200만 공직자 사익 추구 차단

## 전국 17개 시·도와 청렴 협약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의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합 사의추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공직자들의 의무와 제한 행위를 명확히 담고 있어 공직자들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에서 의 심리적 갈등을 덜고, 국민들께선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광주지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전현희(57)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광주 금남로 광주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제정·공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전담T/F를 구성하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구역에 착수했다"며 "법 시행 전 수범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숙지·실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퇴사자 사적 접촉·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가족 채용 제한·수의계약 체결 제한·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5가지 제한·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주요 시·도와 청렴 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등 청렴도 강화를 위해 강행군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남 광주시와 맺은 협약이 14번째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광주시가 2년 연속 5등급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는 “청렴도는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인식, 문화와 행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금·고위직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권의위원회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지난 2008년 2월 탄생했다. 국가의 부패 방지 컨트롤타워로 공식화되 부패 예방, 국민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 개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리 보호가 주요 업무다.

전 위원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 데레사 여고와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다. 1996년 국내 최초로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 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다 제18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선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24년 만에 야당(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화제가 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8%·윤석열 20%

4개 기관 조사...이낙연 9%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36% 1위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엠펙인터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에게 ‘차기 대통령경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묻은 결과, 이 지사를 짚은 응답이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1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총장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한 20%를 기록했다.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양자 간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 밖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3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포인트 하락한 9%를 기록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 무소속 홍준표 의원 3%, 정세균 전 국무총리 2% 등 순이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36%를 기록했다. 2주 전의 19%에서 무려 17%포인트 뛰어오른 것이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4%포인트 떨어진 12%를 기록했다. 주호영 후보 4%, 홍문표 후보 2%, 조경태 후보 1% 등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가 53%, 나 후보 23%의 지지를 받아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희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철재시공모습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강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